전략

김장열의 '요것만'

김장열
jay.kim1007@gmail.com
02-3779-3531

스태그플레이션만 아니라면.....추가 하락 리스크는 제한적. 이슈는 촉매도 기다려 봐야 한다는 점



*시황

인플레우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본격 인식. 테이퍼링/위드코로나 모두 시간 문제.

그러나 속도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 시장 할인율 높여.

바람직한 희망은 미 장기금리 상승+달러 약세 조합으로 글로벌 경기전망 개선되면서, 이머징 시장 우려 완화되고 결국 Risk-on 재개되는 것.

가장 큰 우려는 미 장기금리 하락+달러 강세 조합 전개로 글로벌 경기전망 악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는 것.

현재는 미 장기금리 상승+달러 강세 조합으로 : Fed의 테이퍼링/금리인상 조치 공격적 우려, 헝다 사태의 이머징 시장으로 전염 우려 등.

이론적 대응은 원자재재, 금융주이지만 이미 많은 부분을 반영하였음

자동차, IT, 배터리 관련주가 최근 조정을 미리 받았음

따라서, 낙폭과대로 저점 분할 매수+ Very selective 금융, 레저의 바벨 전략 대응

코스피는 3000이하는 12개월 선행 PER 10.5배/ PBR 1.1배 수준. PER기준 이머징 시장 평균 대비 20% 수준 할인 상태. 22년 이익 전망이 역성장이 아니라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 아니라면 하방 경직성 보일 만한 지점

주가 촉매: 주요 대기업의 22년 사업계획 (특히 투자) 전망 제시 (가능?) 11월 테이퍼링 액션 전후 반등 예상. 촉매 확인 전까지는 철저히 저점 매수/ trading으로 접근해야

11월 코스피 전망: 2900~3100

*현 시점 (10월 8일) 포트폴리오

IT : SK하이닉스, Naver, 카카오

자동차: 기아

금융: 현대해상

여행/레저 관련: 강원랜드

2차전지: SK아이이테크놀로지

에너지/정유: S-Oil, 유니드, LX인터내셔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점

삼성전자: PBR 1.5~1.6배, 6.5~6.9만원, 모두가 비슷한 생각=> 조금은 더 높은 선에서 저점

SK하이닉스: PBR 1.0~1.1배, 8.7~9.5만원, 모두가 비슷한 생각=> 조금은 더 높은 선에서 저점

반도체 가격 하락이 4분기부터 시작되어도 12개월 내내 하락 지속 (누적 40% 이상) 또는 적자가능성 부상되지 않는 한 악재를 6~9개월 정도 선반영할 것으로 판단. 그 시점은 10월 (빠르면)~12월 (늦어도)

*금주의 한줄

예술가는 무모하고 학자는 비겁하다

펀드매니저도 ( ) 무모하고 애널리스트도 ( ) 비겁하다

:(예술가/펀드매니저) 먼저 느끼고 표현한다,(학자/애널리스트)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이야기를 시작한다. 곱씹어 봐야 한다는Industry Guru의 충고에서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김장열)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투자등급 6 단계	단기 주가 상승		0.0%	
		중장기 주가 상승		85.7%	투자의견 비율은 의견 공표 종목들의 맨 마지막 공표 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 (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
		단기 주가 하락		0.0%	
		단기 주가 박스권		7.1%	
		Attention		7.1%	
		합계		0.0%	